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이 경 하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머리말
2. 당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
 - 2.1. 女神의 원시적 형상
 - 2.2. '일대기 구조'의 수용에 따른 변모
3. 일반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
 - 3.1. 女神의 권능 강조
 - 3.2. 女人의 고난 강조
4. 여성구비서사시의 문화사적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제주도 본풀이는 한국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를 위한 寶庫로서,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은 지 오래이다. 본풀이는 일차적으로 한반도와는 구별되는 제주도만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지만, 곳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무속문화의 특성과 한국고전문학의 원형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특히 일반본풀이는 무속제의라는 본래적 기능을 넘어서서 서사무가에 내포된 문학과 오락성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본풀이에 대한 '서사시적' 연구는 바로 본풀이가 갖고 있는 문학과성에 보다 주목하는 입장이다.¹⁾ 동일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면서 굳이 '서사시'라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본풀이를 하나의 엄연한 '문학갈래'로서 다룬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본풀이에는 특히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영웅의 일생 구조로 이루어진 자료

1) 현용준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을 편찬하면서, 본풀이 중심의 채록이나 곳의 단편적 기술만으로는 곳의 종합적 논리체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제주도 무속의 본질을 밝히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본풀이를 실제 제의 상황이나 곳의 기능과 따로 떼어 놓고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본풀이를 그 자체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여타 문학갈래와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본풀이에 대한 서사시적 접근을 통해 그 문학과성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많이 있어 주목된다. 한반도 내에서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바리공주>나 <제석본풀이>도 그렇지만, 제주도의 초공본, 삼공본, 할망본, 세경본 등은 그 대표적인 자료이다. 일반본풀이 개별 자료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주인공인 일반본풀이의 경우 그 여성신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했다.²⁾ 또한 일반본풀이 만큼 장편은 아니지만 일대기 구조를 갖추고 여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서사시는 당본풀이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일군의 본풀이 자료가 ‘여성주인공 서사시’라는 공통된 기준으로 묶인다면, 이에 대한 거시적인 조망이 한 차례 요구된다. 우선 구조적으로는 얼마나 같고 다른지, 본풀이의 대상인 여신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만일 여신의 성격에 일정한 변이가 보인다면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³⁾ 그 의미는 신화, 전설, 소설 등 여타의 서사문학에서 형상화된 여성 인물과 대비해볼 때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2. 당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

여성서사시로서의 당본풀이는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여신의 내력이 일대기 형식으로 서술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일대기 구조는 일반본풀이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현상이지만, 당본풀이에도 일대기 형식을 빌어 여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본풀이와 당본풀이 사이의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의 내력을 일대기 형식으로 노래하는 것은 남성영웅서사시에서 보편적인 ‘영웅의 일생’ 구조를 당본풀이가 수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대기 형식이 아닌 당본풀이에서 여신이 보다 원시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1. 女神의 원시적 형상

일대기 구조를 취하지 않으면서 여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여성서사시로는 제주시의 <각시당본풀이>와 <용강분향당본풀이>, 조천면 와산리의 <눈미불도당본풀이>, 구좌면의 <송당분향당본풀이B형>⁴⁾을 들 수 있다. 각시당본, 용강분향당본, 눈미불도당본의 서사적 주체는 옥황상제 셋째따님으로 설정되어 있다. 모두 지극히 단편적이어서 과연 서사시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여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매우 이른 시기의 형태로서 주목해야 할 자료가 아닌가 한다.

<각시당본풀이>에서는 옥황상제 셋째딸이 궁녀 선녀들에게 물밥 주는 것을 잊어서 인간 세계로 귀양을 왔다고 했다. 堂神의 출자가 고귀하며, “송낙 쓰고 장삼 입고 / 백팔 염주 목

2) 서대석, 「제석본풀이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문학사상사, 1980) ; 현승환의 「삼공본풀이 형성과정 연구」, 『민요·무가·탈춤 연구』(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 ; 이수자, 「삼신 신앙의 기원과 성격」, 위의 책 ;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과 의의」, 『이화어문논집』~제10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89) ;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이대박사학위논문, 1989) ;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제11집(1990) ; 강은혜, 「한국신화와 여성주의 문학론」, 『한국학논집』~제17집(계명대학교, 1990) 참조.

3) 자료는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이하 『무속』)과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0. 이하 『무가』)에 수록되어 있는 당본풀이와 일반본풀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서 자료를 직접 인용할 때는 운문으로 된 서사시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능한 『무가』를 이용한다.

4) 이 자료는 흔히 소천국과 백주또가 부부신으로 등장하는 여타의 송당분향당본풀이(A형)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이와 구별하기 위해 ‘송당분향당본풀이B형’으로 칭한다.

에 걸고 / 인간세계에 내려와 / 삼도동 남문골 靑竹 갈대밭에”⁵⁾ 좌정하게된 경위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겠다. <용강본향당본풀이>에서는 옥황상제 셋째따님이 귀양올 때 인간이 타작질하는 모습에 반해서 인간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설정이 흥미롭다.

<눈미불도당본풀이>는 눈미[臥山里] 웃당 佛道産神의 내력을 노래하는 서사시이다. 옥황상제 막내딸이 인간세계로 귀양와서 와산 당오름 상상봉에 자리를 잡았는데, 와산리에 사는 한 사람이 자식이 없어 문복을 했다가 “당오름 상곡지(上頂)에 난디웃인 큰 돌이 싯젠 허여라”⁶⁾라는 말을 듣고 그 돌을 찾아 제를 지낸 후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했다. 당신의 모습이 옥황상제따님이라는 ‘인간’의 형상에서 ‘돌’이라는 무생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여신의 變身과 환생이 한 편의 서사시 내에서 두드러지는 자료는 표선면의 <토산리알당본풀이>이다. 일대기 형식은 아니지만, 여신의 형상이 뱀에서 금바둑으로, 애기씨로, 다시 구렁이로 변하면서 꽤 장편을 이루었다. 나주목사가 신당의 영험을 시험한다면서 뱀신을 불러내어 이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서두에 길게 서술된다. 금바둑·은바둑으로 환생한 뱀신은 서울에 진상하러 온 강씨·한씨·오씨형방을 따라 제주 토산리에 입도하게 된다. 그런데 금바둑·은바둑은 어느새 애기씨와 늦인득이 정하님, 즉 인간의 형상으로 그려지며, 이들은 왜놈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후 애기씨의 늦은 형방의 딸아기들에게 들고, 성대한 치병굿을 통해 애기씨는 다시 구렁이로 환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제주시 외도동의 <두리빌렛당본풀이>의 여신 내력담도 이와 유사하다. 영천 이목사의 뱀신퇴치담, 김동지·박동지가 서울에 진상갔다 귀환하는 길에 구렁이의 도움을 받는 영험담은 <토산리알당본풀이>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두리빌레 용해부인 할마님은 토산리알당의 여신과 달리 줄곧 뱀이나 구렁이의 형상으로만 그려진다.

여신이 뱀과 애기씨의 형상으로 함께 그려지는 경우는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에서도 확인된다.⁷⁾ 제주에 흉년이 들었을 때 巨富인 안씨선조[安氏船主]가 금부도사의 명으로 나주 기민창[濟民倉]에서 무곡을 싣고 돌아오는데, 이때 나주 기민창을 지키던 뱀신이 따라오게 된다. 다음은 나주 기민창의 뱀신이 처녀의 모습을 하고 안씨선조의 배에 오르는 장면이다.

안씨선조가 반가운 눈물로, 덕진드리 베진고달또 멩지와당 실브름 나는 날,
“영자야, 화장(火匠)아, 닷 감으라. 베놓아 가자.”

홀 때, 나줏고을 모든 백성(百姓)이 손 흔들명 적삼 돌르명 모두 전송츄(餞送次)로 이별(離別)호고 작별(作別)호고 안씨선존 벳장 우(上)의 앳아 전송(餞送)을 받다 보니 성창(船艙) ㄷ(邊)의 연반물 치매 연반물저구리 갑초맹기 식갑머리 갈라 다와 등에 진 처녀아기씨가 서대상지 〇·ㄹ에 차고, 안씨선조 오른 발판 우으로 웨씨 ㄱ뎡 발자국 노아 벳장 우으로 오릅데다. 안씨선조(安氏船主)가

“저게 어떤 처녀(處女)런고? 나줏고을 솟새각시 나호고 언담(言談)이나 호레 오는 게 아닐러나?”

벳장 우의꺄지 올라온 아기씨가 오도가도 아니허여 피라곡질(必有曲折) 이상호다. 아기씨 발자추를 벳장 구석마다 좃아바도 아기씨 발자추가 온 디 간 디 엇어 이상도 호구나.
홀 수 웃이 물때는 늦어지고 깃발을 내올려 베진고달또 포구(浦口) 밧끼 베를 놓읍데다.⁸⁾

5) 『무가』, 321면.

6) 『무속』, 619면.

7) 조상본풀이는 당본풀이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여신의 성격이 변모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무속』 791-2면.

분명 한 처녀 애기씨가 배에 오른 것을 안씨선조가 보았는데 정작 찾아보니 처녀의 발자취는 온 데 간 데 없었다고 했다. 나중에 안씨선조의 배가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 커다란 구렁이가 배 바닥에서 물을 막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배가 제주에 무사히 닿아 제사를 올리자 그 뱀신은 안씨선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처럼 신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무생물이나 동물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것은 원시서사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⁹⁾ 서사시에서 신은 애초에 뱀과 같은 동물, 또는 바위나 돌과 같은 무생물의 형태로 그려지다가, 인격이 부여되면서 여신 또는 남신으로 나뉘게 되고, 다시 여신의 여성성과 남신의 남성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두리빌렛당본풀이>의 뱀신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면, <각시당본풀이>과 <용강본향당본풀이>의 여신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그려져 여신의 형상에 일대 변화를 짐작케 한다. <토산리알당본풀이>·<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눈미불도당본풀이> 등은 여신이 동물 또는 무생물과 인간의 형상으로 교체되면서 그 중간단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구좌면의 <송당본향당본풀이B형>은 여신이 大母神의 형상을 띠고 있어 주목되는 자료이다. 여신의 이름은 한라 영주 봉래 방장산의 이씨할망이다. <각시당본풀이>이나 <용강본향당본풀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인 남신이 등장하지 않는데, 胞胎木 아래에서 열매를 우연히 삼키고 딸 아들 육형제를 낳아 그 자손이 길게 이어졌다는 설정이 주목을 요한다. 그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할루영주 봉래 방장 삼신산	한라 영주 봉래 방장 삼신산
포아낭알로	胞胎木 아래로
이씨 할망이 갈라전	이씨 할머니가 자빠져서
입을 아우연 시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입테레 올매가 떨어진 게	입으로 열매가 떨어진 것이
옥곶 먹어지난,	꿀꺽 삼켜지니까
그게 유태를 ㄹ전. ¹⁰⁾	그것이 有胎가 되어서

여기서 이씨할망은 여신이 남신과의 결연 없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원시시대의 大母神으로 그려진다.¹¹⁾ 대모신은 天父神과 地母神의 분화된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인 신으로서, 兩性的인 존재이다. 이씨할망이 열매를 먹고 잉태를 했다는 설정은 양성적인 대모신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씨할망은 “앉아 천 리 보고 / 서서 만 리 보고 / 가는 액 오는 액 막아주자 / 없는 命도 지니게 해 주고 / 없는 복도 지니게 해” 주는 일반적인 신의 권능을 지니면서, 동시에 제주도 각처 당신의 시조가 된다.

이처럼 일대기 형식을 취하지 않은 이른 시기의 여성서사시들도 여신의 성격면에서 보면 다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시당본풀이>나 <용강본향당본풀이>의 여신들은 옥황상제 따님이라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여신’으로서의 성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눈미불도당본풀이>에서는 여신이 인간과 무생물 두 가지 형태로

9) 김현선,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383면.

10) 『무가』, 417면.

11) 한국의 신화 전승에서 마고할미와 선도산·지리산 聖母는 大母神(the Great Mother)으로서 가장 원초적인 여신상으로 파악된다. 본래 兩性的인 성격을 띠는 대모신은 원시농경사회에서 건국시조와 신화적 영웅이 출현하는 역사시대가 되면서 天父神의 배우자인 地母神으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된다. (천혜숙, 『여성신화연구(1) :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참조)

그러져 보다 원시적인 흔적을 보이는데, 인간에게 자식을 짐지해주는 생불할망과 같은 권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여신의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송당본향당본풀이B형>의 이씨할망은 배우자 없이 스스로 잉태하는 주체로서 대모신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차이점이 있다.

2.2. ‘일대기 구조’의 수용에 따른 변모

이 장에서 살펴볼 자료는 ‘여신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당본풀이 네 편이다. 여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단순한 형태의 당본풀이가 ‘영웅의 일생’ 구조를 수용하면서 서사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에 주목하고, 서술의 대상이 되는 여신의 성격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자료는 한경면 저지리의 <허릿궁할망본풀이>이다. 여러 편이 채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교술이거나 매우 단편적인 서사이다. 주인공은 정좌수 딸아기인데, 정좌수 부인이 부부관계 없이 잉태하여 그를 낳았다고 했다. 그 딸아기가 부모에게 불효하여 귀양을 와서 자식 일곱을 낳고, “面 차지, 마을 차지, 호적 차지, 장적 차지, 人物都姓冊 차지하여” 살았다고 했다. 이어서 자식 일곱이 치소를 정하는 내용이 차례로 서술된다.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는 있지만, 본래 여신의 내력을 읊는 단순한 형태의 당본풀이가 일반본풀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신의 ‘혼전잉태-추방-출산’의 화소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형태가 아닌가 짐작된다. 배우자의 존재나 결연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며, 잉태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도 특별히 주인공의 고난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다.

‘혼전잉태-추방-출산’의 화소가 여신과 연결되는 형태¹²⁾는 <송당본향당본풀이A형>¹³⁾에서도 확인된다. <송당본향당본풀이A형>과 <괴너깃당본풀이>는 제1대 부모신인 소천국·백주님과 제2대 송곡성의 이야기인데, 각편에 따라 세 인물의 비중이 조금씩 다르다. <괴너깃당본풀이>에서는 아들신인 송곡성의 일대기가 특별히 강조된다. 반면에 <송당본향당본풀이A형>에서는 서두에 소천국과 백주님의 출자, 결연, 살림분산의 과정이 서술되는데, 여기서도 ‘혼전잉태-추방-출산’의 화소는 여신의 출자를 설명하는 하나의 구비공식구처럼 사용되고 있다.

구좌면의 <월정본향당본풀이>는 황토고을 황정승 따님애기의 일대기를 노래한 여성서사시이다. 핵심적인 서사단락만 정리하면 다음의 네 단계로 나뉜다.

- A. 부모에게 불효 - 추방
- B. 상단골 지정(뱀신)
- C. 태오토와 혼인
- D. 식성갈등으로 인한 살림분산 - 뚝제법 마련

황토고을 황정승 따님애기가 일곱 살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무쇠석함에 갇혀 동해바다에 버려진다는 내용은 영웅의 일대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소이다. 애월면 포구에서 김침지 영감에 의해 구출되었을 때, 황정승 따님애기는 뱀의 몸으로 변해 있다. 그리고 김침지의 딸 삼형제에게 병을 주었다가 낮게 하고 김씨집을 상단골로 삼는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신

12) 본풀이에서 많은 경우 여신의 혼전잉태와 추방은 여신이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치소를 정하거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 같다.

13) 각주 4번 참조.

의 형상이 뱀과 인간을 넘나드는 것은 원시서사시의 잔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신이 뱀으로 형상화되는 B단락은 일종의 ‘제향경위담’¹⁴⁾으로서, 이 구전서사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서사단위담 가운데 A나 C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뱀으로 변한 황정승 따님애기는 C단락에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따님애기가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다 주막에서 쉬던 중 태오또를 만나 혼인하게 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전개된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신의 결연 자체가 여신에게 어떤 갈등이나 고난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여신과 남신의 결연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는 것은 본풀이가 갖고 있는 서사시로서의 문학성이 확대되는 중요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신의 내력과 제향경위를 노래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당본풀이가 일반본풀이나 여타 서사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서사가 확대되는 현상의 하나라고 하겠다.¹⁵⁾

D단락의 ‘식성갈등과 살림분산’은 당본풀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또 다른 화소이다. 황정승 따님은 태오또와 혼인 후 딸 일곱을 낳고 사는데, 어느날 돼지털을 그슬려 냄새를 맡게 된다. 집에 돌아온 태오또가 이를 부정하다 하여 살림을 가르고 댕제법을 마련해 따로 살게 한다. 표선면의 <토산웃당본풀이>에도 용왕국 셋째따님인 신중부인이 식성갈등으로 소천국에게 쫓겨나게 된다는 D단락과 같은 단위담이 들어 있다. 이같은 여신에게는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렛날에 돼지고기를 올려 제를 지내면 안질, 설사, 움, 허물 등을 낫게 해 주고 아이를 잘 키워준다고 되어 있다.¹⁶⁾ 이처럼 육식의 여신이 治病神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성이 일반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존재로서, 育兒의 주체라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⁷⁾

<세화백주또본풀이>¹⁸⁾는 구좌면 세화리 분향당본풀이 가운데 특히 여신인 백주또를 주인공으로 한 일대기 형식의 여성서사시이다. ‘영웅의 일생’¹⁹⁾ 구조를 염두에 두고 공통된 서사단락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14) 김침지가 무쇠석함을 열었다가 딸들에게 병이 나고 뱀신에게 제향하기까지의 과정은 전형적인 ‘제향경위담’의 내용이다. ‘무쇠상자와 뱀’이라는 기표와 ‘신격출현’이라는 기의로써 표현되는 제향경위담은 당본풀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서사적 구성요소이다.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1-31면 참조)
- 15) 일대기 형식은 아니지만, 한림읍 금약리의 <금약분향당본풀이> 역시 여신의 결연과정이 특별히 자세하다. 주인공은 정좌수 딸아기이다. 최지국 아들이 사냥을 갔다가 정좌수 딸아기를 보고 손목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딸아기에게 혼이 나고 살려달라고 빈다. 이후 정좌수 집에서는 딸아기의 혼사말이 오가는데, 딸아기는 천정배필이 따로 있다고 거부한다. 어느날 정좌수 딸아기는 집에 찾아온 최지국 아들을 가리키며 자기의 천정배필이라고 하여 혼인을 한다. 두 신이 치소를 정하고, 자식 일곱도 각각 신으로 좌정한다고 되어 있다.
- 16) 남신의 육식신이 수렵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영웅신이라면, 여신의 육식신은 설사나 안질, 피부병 등의 치병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현용준, 앞의 책, 204면)
- 17) 본풀이에서 흔히 미식을 하는 白神과 육식을 하는 黑神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그려지는데, 미식신을 청결한 상위의 신으로 간주하고 육식신을 부정한 하위의 신으로 보는 관념이 나타난다. <월정분향당본풀이>나 <토산리웃당본풀이>처럼 흑신이 반드시 여신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괴뇌깃당본풀이>나 <세화분향당본풀이>의 백주님처럼 白神은 여신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현용준, 앞의 책, 204면 참조)
- 18) 구좌면 세화리의 분향당본풀이는 천제또, 백주또, 금상, 이 三神의 본풀이를 차례로 구연하는데, 여성서사시와 관련해서 주목할 자료는 백주또에 관한 본풀이이다. 三神의 본풀이에는 다른 두 신도 함께 등장하는데, 다만 서사의 주체가 바뀌고 신의 성격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여신인 백주또에 관한 본풀이를 특히 <세화백주또본풀이>라고 명명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19) A.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B. 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C.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D.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E. 구출,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F.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G.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16면)

- A. 제주도 천제할으방의 외손녀이다.
- B. 남산 또는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
- C. 요술주머니로 바람과 안개를 부르고 소리를 몇게 하는 능력을 지닌다.
- D. 일곱살에 불효하여 용왕국으로 쫓겨간다.
- E. 용왕국 외삼촌들에게 양육된다.
- F. 천제할으방을 찾아가는 길에 상단골을 정하고, 명동소천국을 만나 겁탈의 위기를 겪는다.
- G. 천제할으방을 찾아가 신격을 인정받고 명동소천국을 정치한다.

이 여신은 각편에 따라 백주또, 백주님, 백주당, 백주애기씨 등으로 불린다. 서울 남산 송악산 또는 서소문 밖 백모래밭, 가는대밭, 神대밭에서 솟아났다고 했다. 일곱 살에 부모에게 불효하여 용왕국으로 쫓겨갔다는 ‘기아/추방’의 화소는 본풀이 영웅서사시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것이다. 용왕국에서 열 두 명의 외삼촌들에게 양육되는데, 그곳을 떠나올 때 요술주머니 열 두 개를 받아왔다고 했다.

제주도로 오는 도중 서울 장안에서 백주또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대목이 있다. 삼천 선비가 풍악놀음을 하고 있었는데 백주또가 늦인득이 정하님을 시켜 선비들에게 거문고(장고, 피리 등)를 빌리려다가 거절을 당한다. 거절을 하는 이유는 “여편네는 꿈에만 봐도 재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대목을 보자.

늦인득이 정하님이
삼천선비안티 가서
“저디서 백주님이
거문고를 빌려줍센 홉네다.”
삼천선비가 말을 하되,
“예편은 꿈에 시꾸와도
새물이라” 하면서 후욕하니
돌아오랐습니다.
백주님이 청춤치를 내어놓고
“푸-” 하게,
흔번 두번 연시번을 부니,
팔만 제장안이
즈진어남 보이여기가
탕천호는고.²⁰⁾

늦인득이 정하님이
삼천 선비한테 가서
“저기서 백주님이
거문고를 빌려주십시오 합니다.”
삼천 선비가 말을 하되,
“여편네는 꿈에만 봐도
邪物이라” 하면서 욕을 하니
돌아왔습니다.
백주님이 청주머니를 내어놓고
“푸-” 하고
한 번 두 번 연 세 번을 부니,
팔만 모든 장안이
질은 안개 황사로
뒤덮히는고.

삼천 선비들이 백주또를 여자라고 무시하자 백주또가 요술주머니로 이들을 정치하는 장면이다. 청주머니를 꺼내 세 번을 불자 모래바람이 불어 서울 장안이 온통 황사로 뒤덮힌다. 각편에 따라 선비들이 갖고 연주하던 거문고나 피리 등이 갑자기 소리를 몇게 하는 이적을 보이기도 한다. 백주또의 신이한 능력을 경험한 선비들은 곧 백주또에게 사죄하는데, 백주또가 무시당한 이유가 여자라는 신분에서 기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백주또에게 고난이나 역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백주또가 갖고 있는 ‘신’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면서, 백주또의 ‘여신적’ 면모가 아울러 강조되고 있다고 본다. 백주또와

20) 『무가』, 388-9면.

삼천 선비 사이의 일시적인 갈등은 ‘여신’과 ‘남성 인간’의 대결로서, 그 결과는 이미 자명하다.

그러나 백주또와 명동소천국의 대결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여신과 남신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온 백주또는 외할아버지인 천제할아버지를 찾아가던 길에 허승상집 따님아기를 만나 상단골로 정하고, 명동소천국을 만나 겁탈의 위기를 겪게 된다. 천제또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던 명동소천국이 백주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겁탈하려 하자, 백주또는 잡힌 팔목을 자르고 도망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상단골을 정하는 과정에서 허승상집 따님에게 대접을 받을 때도 확인되듯이, 백주또는 米食을 하는 白神이다. 그의 외할아버지 천제또 역시 백신이다. 그런데 백주또를 겁탈하려던 명동소천국은 黑神으로 묘사된다. 백주또가 명동소천국이 사는 집에 당도하니 “노린내가 탕천하고 소뻐 말뻐가 있어” 백주또는 “쇠도둑놈 사는 데로구나” 생각하고 도망을 치게 된다. 이후에 천제또는 명동소천국을 징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F·G단락에서 보이는 백주또와 명동소천국의 갈등과 그 결말을 두고, 단지 백신과 흑신의 식성갈등으로 볼 것인가, 남성과 여성의 갈등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서 볼 것인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²¹⁾ 물론 본풀이에 나타나는 흑신과 백신의 식성갈등 모두를 남신과 여신의 갈등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화백주또본풀이>의 경우에는 신들간의 갈등이 남신의 여신에 대한 겁탈시도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식성갈등에만 그 의미를 국한시킬 수 없을 것 같다. 서울 장안에서 일천 선비들이 백주또를 여자라고 무시했다가 징치를 당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세화백주또본풀이>는 여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당본풀이가 단지 ‘여신’의 출자나 그에 대한 제향경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여성’ 일반에 관한 문제의식까지 담아냄으로써 서사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표선면 가시리의 <문씨애기본풀이>는 <당남우영할망당본풀이>라고도 한다. 문씨애기를 주인공으로 한 일대기 형식의 서사전개가 매우 뚜렷하다. 서사단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문씨영감이 딸 하나를 낳다.
- B. 문씨애기가 일곱 살에 산딸기를 따러 우그리동산에 갔다가 길을 잃고 청구름에 묻혀 한라영주산에 오르다.
- C. 백록담에서 산신대왕 산신백관이 바둑 장기 두는 것을 구경하면서 삼(칠)년을 지내다.
- D. 하루는 허포수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나무 덩굴 밑에 있던 문씨애기를 발견하고 문씨영감 집으로 데려다준다.
- E. 눈이 먼 문씨영감부부가 딸아기를 알아보지 못하자, 문씨애기가 은길같은 손으로 세 번을 쓸어 눈을 띄우다.
- F. 정의원이 인통쇠를 잃어버렸는데 문씨애기가 찾아주고, 이로 인해 제향을 받게 되다.
- G. 인통쇠를 훔쳤던 기둥 통인을 용서해주고 배를 타고 살 방도를 마련해주는데, 삼년 만에

21) 백신과 흑신의 대결이 <송당분향당본풀이A형>이나 <월정분향당본풀이>에서는 부부신 사이의 식성갈등과 살림분산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백주또와 명동소천국이 부부신이 아닌 상태에서 갈등하고, 백주또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된다. 한편 세화리의 분향당본풀이 ‘금상장수’편에서는 백주또와 금상이 부부로 설정되어 있다. 금상은 명동소천국과 같이 육식을 하는 흑신이지만, 백주또와 금상님이 식성갈등으로 인해 살림을 분산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오히려 고기를 먹지 못해 아위어 가는 금상을 위해 백주또가 돛제법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돌아온 기동통인이 죽은 문씨애기를 위해 당을 세우다.

‘영웅의 일생’ 유형에 비추어 보면, 문씨애기는 그 혈통이나 출생이 특별히 귀하거나 비범한 면을 보이지는 않는다. B·C단락은 ‘기아’와 ‘구출자에 의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려서 부모와 이별하게 되는 계기나 상황이 특이하다. 산딸기를 따러 우그리 동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한라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백록담에서 신선들과 함께 3년 또는 7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영웅 또는 신들이 집을 떠나 경험하는 이계는 흔히 동해바다 용궁으로 설정되는데, 여기서는 한라산 백록담이 초월계로 설정되어 있다. 신선들이 장기 두는 것을 구경하면서 백록담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E·F단락은 허포수에 의해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온 문씨애기가 신이한 행적을 보이는 부분이다. “눈을 트면 이심 일을 알고, 눈을 감으면 저심 일을 알고, 천기운길 쫓으면” 권능은 문씨영감 부부의 감긴 눈을 뜨게 하고 정의원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웅의 일생에서 일반적인 2차위기와 극복은 보이지 않는다. 영웅으로서의 수난보다는 신적인 권능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²²⁾

그러나 문씨애기는 본래 인간이었다가 일정한 통과의를 거쳐 신이 된 존재로서, 앞서 살핀 여성서사시의 여신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일대기 구조를 취하든, 단순한 형태의 내력담이든, 당본풀이에 나타난 다른 여성서사시의 주인공들은 본래부터 신이었다면, 문씨애기는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된 존재이다. 문씨애기가 한라산 백록담에서 신선들과 생활하다가 현실계로 돌아와서 보인 신적 권능은 신을 접한 무당이 행하는 이적과도 상통한다. 즉, <문씨애기본풀이>는 女巫의 내력을 노래한 서사시로서, 일대기 구조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서사적으로 확대된 형태라고 하겠다.

3. 일반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

여신을 주인공으로 한 일반본풀이는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할망본풀이><칠성본풀이><지장본풀이><세경본풀이>이다. 이들은 모두 일대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본풀이는 기본적으로 신의 내력을 노래하는 것인 만큼, 본풀이인 여성서사시의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모두 여신이다. 그러나 단순한 형태의 본풀이가 일대기 구조를 수용하여 서사적으로 확대되고 오랜 시기가 지나면서 그 여신의 성격도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 같다. 2장의 논의를 통해 당본풀이에서 그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본풀이 내에서도 일정한 변이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할망본풀이><초공본풀이><세경본풀이>를 통해 변이의 큰 축을 짚어보기로 한다.

3.1. 女神의 권능 강조

<할망본풀이>는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삼신신앙과 제주도 큰곳에서 행하는 ‘불도맞이’라

22) 이것은 문씨애기가 <초공본풀이>의 자지명아기나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보다는 생불할망에 보다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로부터의 분리-이계 체험-신적 권능의 행사’로 이어지는 신의 내력을 노래한 서사시란 점에서 <문씨애기본풀이>와 <맹진국할망본풀이>는 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상론할 것이다.

는 무속제의와 관련되는 아이 産育神에 관한 일종의 신화이다.²³⁾ 잉태와 출산, 양육에 관계하는 신이 있다고 믿고, 아기를 출산할 때 이 신을 위한 제의를 마련하여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안전 및 장수를 기원하던 풍습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불도맛이라는 구체적인 제의의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할망본풀이>라는 서사시의 형태로도 전승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할망본풀이>로 명명되는 자료는 『무가』에 네 편, 『무속』에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동일한 자료는 아니고 내용상 크게 둘로 나뉜다. 생불할망과 저승할망의 내력을 노래한 ‘할망본풀이’, 생불할망과 마마신인 대별상신과의 대결을 노래한 ‘마누라본풀이’가 그것이다. 『무속』과 『무가』에 실린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할망본풀이(『무속』T08-116면) : 맹진국할망과 저승할망의 일대기
- ㉡ 맹진국할망본풀이(『무가』T36-139면) : 맹진국할망의 일대기
- ㉢ 저승할망본풀이(『무가』T39-141면) : 저승할망의 일대기
- ㉣ 할망본풀이(『무가』T41-146면) : 맹진국할망의 일대기+대별상신과의 대결
- ㉤ 마누라본풀이(『무속』T19-122면) : 맹진국할망과 대별상신의 대결
- ㉥ 할망본풀이(『무가』T31-136면) : 맹진국할망과 대별상신의 대결

㉠은 맹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가 경쟁하여 각각 인간생불왕과 저승할망으로 들어서는 내용이다. 두 여신의 일대기가 교차되면서 서술되고, 두 할망의 경쟁이 두드러진다. ㉡은 맹진국따님애기를 주인공으로, ㉢은 동해용왕따님애기를 주인공으로 하여, 각각 인간생불왕과 저승할망으로 들어서기까지의 내력을 일대기 형식으로 노래한 것이다. ㉣㉤은 생불할망과 대별상신의 대결에서 생불할망이 승리하는 내용이며, ㉥은 ㉣㉤ 서두에 생불할망의 일대기를 덧붙인 형태이다. 따라서 조금씩 성격이 다르지만, ‘할망본풀이’로 묶이는 이 자료들은 ㉢을 제외하고는 맹진국따님, 즉 생불할망의 내력을 노래한 여성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영웅의 일생’을 염두에 두고 <맹진국할망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맹진국 할아버지는 석가대왕, 할머니는 북해성산 석가산이다.
- B. 丙午年 초사흘날 子時에 發福하고, 丑時에 登極하고 寅時에 生佛을 나리다.
- C. 7세에 이미 앉아서 천 리를 보고, 서서 만 리를 보고, 하늘 아래를 굽어 보며 한 손으로는 單手六甲, 또 한 손으로는 五行六甲을 짚다.
- D. 15세에 옥황상제가 불러 부모와 헤어지다.
- E. 옥황상제를 대면하고 인간생불을 주는 임무를 맡다.
- F·G. 애기삼신, 걸레삼신, 엽계삼신을 거느리고 인간생불을 주다.

일반적인 영웅의 일생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맹진국따님 역시 고귀한 혈통을 타고 났으며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웅과 일치한다. 맹진국따님의 비범한 능력은 “부모에 효심 높고 일가방답[一家親戚] 화목(和睦)하고 지픈 물에 드리[橋] 노아

23) 이수자는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민요·무가·탈춤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에서 제주도의 불도맛이 제의 및 생불할망본풀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삼신신앙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다. 이 논문에서 ‘생불할망본풀이’란 마누라본풀이까지를 포함한, 생불할망과 저승할망에 관련된 모든 할망본풀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월천(越川) 공덕(功德)호고 혼착 손엔 번성꽃(繁盛花) 혼착 손엔 환생꽃(還生花)”²⁴⁾을 거스린 것으로 표현된다.

맹진국따님이 15세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은 ‘기아’의 화소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아는 영웅의 1차적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정되는데, 맹진국따님이 부모와 이별하게 되는 까닭은 옥황상제가 생불을 줄 인간을 물색하던 중 그의 비범한 능력을 알고 冊室導師를 보내서 하늘나라로 불러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주인공이 성숙해지고²⁵⁾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前단계로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F단락은 ‘양육, 자라서의 위기, 승리’를 노래하는 일반적인 영웅의 일대기와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단락의 내용은 영웅에게 닥친 2차적 위기와 그 고난의 극복을 통한 영웅성의 획득이라는 일반적인 영웅서사시의 전개와는 궤를 달리한다. 맹진국따님에게 닥친 새로운 시련은 없으며, 다만 “느가 금시상/얏아 천리 보고/스 만리 본다 하니/금시상[今世上] 도느러서[都내려서]/인간백성 生佛이나 주라.”²⁶⁾는 옥황상제의 신직부여가 있을 따름이다. 신과 영웅의 성격이 다르고, 신의 내력이 비록 일대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해도 영웅의 일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맹진국따님의 여신적 면모는 인간에게 자식을 점지해주고 아기가 잘 자라도록 보살피는 삼신할미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가 여성의 성역할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간생불왕이 여신으로 형상화됨은 일견 당연하다.

“맹진국 얘기가,
금시상 도느리라.” 홀 땀
앞인 보난
애기 삼신을 내여주고
뒤엔 걸레 삼신을 내여주고
엿게 삼신을 거느렸수다.
다시 옥황상제님은
은가새 하나에, 참실 석죄에
고장씨 은씨를 내여주난²⁷⁾

“맹진국 얘기가,
금세상 도내리라.” 할 때
앞에는 보니까
애기삼신을 내여주고
뒤에는 걸레삼신을 내여주고
엿게삼신을 거느렸수다.
다시 옥황상제님은
은가위 하나에, 참실 세 묶음에
꽃씨 은씨를 내여주니까

맹진국따님이 옥황상제로부터 생불할망의 신직을 부여받고 인간세계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환웅이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옥황상제가 내려준 애기삼신, 걸레삼신, 엿게삼신이 아기를 엿어주고 보살피주는 삼신할망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 은가위와 참실은 출산에 필요한 도구이고, 꽃씨는 아기의 생명을 상징한다. 꽃씨의 이러한 상징성은 맹진국따님과 동해용왕따님의 ‘꽃피우기 시합’에서도 확인된다.²⁸⁾

24) 『무속』, 111면.

25) 신화의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은 그가 아이에서 ‘어른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었음을 뜻한다. 흔히 어른의 세계는 아버지로서 표상되는데, 이때 아버지란 존재는 자식이 더 넓은 세계로 나갈 때 마땅히 거쳐가는 ‘입문식의 사제’가 되는 셈이다. (Joseph Campbell, 이윤기 역,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89, 134면)

26) 『무가』, 137면.

27) 『무가』, 138면.

한편, 동해용왕따님에기의 행적을 노래한 <저승할망본풀이> 역시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특별히 영웅적인 행적이나 고난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모에게 불효하여 무쇠철곽에 갇혀 바다에 버려지는 전형적인 기아의 화소가 들어 있고, 바다에 떠내려 가다가 아미산에서 인대감에게 구출되는 ‘1차위기 극복’의 화소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대감에 의해 저승할망으로 들어선 이후에는 다시 위기나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이것은 당본풀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형태로 여신의 내력을 노래하던 서사시가 남성영웅서사시의 일반적인 구조의 영향을 받아 몇 가지 화소를 구비공식구처럼 사용하면서 변모된 양상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할망본풀이’로 명명되는 자료들은 대체로 생불할망의 내력과 신적 권능을 강조하고 있다. 새 생명을 관장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맹진국따님의 신적 권능은 <마누라본풀이>에서 대별상신과의 대결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여기서 일대기 구조는 여신의 신적인 면모를 더욱 두드러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여신의 권능을 강조할 뿐, 주인공의 수난이나 그 고난의 극복을 통한 영웅성 획득은 별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3.2. 女人의 고난 강조

(1) 초공본풀이

<초공본풀이>를 한 편의 서사시로 볼 때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문제삼을 수 있다. 자지명아가 삼형제를 출산하기까지는 자지명아가 서사의 주체이지만, 그 뒤에는 삼형제가 주인공이 된다. 과거를 보려다가 양반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아버지를 찾아 가서 결국 이승이 아닌 저승의 벼슬자리를 얻고,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서 굿하는 법을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구연에서는 각편에 따라 서사시의 주인공이 바뀔 수 있고,²⁹⁾ 그 주인공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서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³⁰⁾ 주인공을 자지명아기로 볼 때, <초공본풀이>는 수난받는 여인의 일대기 형식으로 이루어진 여성구비서사시이다.

자지명아가 부모로부터 추방되기까지의 행적은 <칠성본풀이>의 전반부와도 일치하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칠성본풀이>는 농사의 풍년을 가져다 주는 풍농신인 蛇神의 내력을 노래하는 서사시로서, 육지쪽에서 전승되는 자료와는 구별된다. 주인공은 富君七星 마누라인데, 전반부에서는 인간으로, 후반부에서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두 자료의 핵심적인 서사단락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8) 생불신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꽃피우기 시험’이 설정된 것은 ‘생명=꽃’이라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꽃에 비유할 때, 시드는 꽃은 왕성하지 못한 생명력을, 꽃꺾기는 질병유발로 해석된다. (이수자, 앞의 논문, 361면.)

29) 제주도의 범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볼 때, <초공본풀이>는 <제석본풀이><당금에기> 등으로도 불리는데, 동북지역의 전승유형은 父子관계가, 서남지역 전승유형은 母系的 성격이 강조된다고 했다. (서대석, 「제석본풀이 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195면)

30) 이러한 현상은 한 편의 서사시가 대장편일수록 두드러진다고 생각된다. 실제 구연에서는 항상 서사시 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대목만을 독립시켜 구연하기도 하고 특정 부분의 서사만을 강조해서 구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마야나><마하바라타> 외에도 인도의 구전서사시 가운데 대장편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때 일어나는 변이는 무속적 제의라는 본래 기능에서는 멀어진 것이지만, 본풀이가 서사시로서 문학성을 획득하고 확대되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초공본풀이> : 수륙불공으로 자지명아기의 출생 → 부모 출타시 중의 방문 → 혼전잉태 → 추방 ⇒ 남편을 찾아서 → 출산 ⇒ 삼형제의 어린시절 → 삼형제의 과거시험 및 축출 → 아버지를 찾아서 → 자지명아기와 삼형제의 신직부여

<칠성본풀이> : 칠성제로 딸아기 출생 → 부모 출타시 중에게 납치 → 혼전잉태 → 추방(무쇠석곽) ⇒ 구출(뱀의 형상, 출산) → 해녀들의 神病과 칠성새남 → 모녀뱀신의 좌정

자지명아기는 수륙불공을 드려 얻은 귀한 자식이다. 부군칠성 마누라 역시 宋星君과 張星君이 칠성제를 지내서 얻은 귀한 딸이란 점에서 우선 두 주인공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출생이후의 행적은 더욱 유사한데,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중과의 결연, 혼전잉태, 이로 인한 추방의 과정은 동일하다.

<초공본풀이>에서는 부모가 없는 동안 집에 시주를 받으러 온 중이 “애기씨의 상가마를 살짜살짜 삼세 번 어루만져” 자지명아기가 잉태를 하게 된다.³¹⁾ <칠성본풀이>에서 부군칠성 마누라는 부모가 星君벼슬을 살려 떠나자 부모를 몰래 따라 나섰다가 중에게 납치를 당하게 된다. 중은 딸아기를 “밤에는 데리고 누워서 一千不雜을 다 하고, 낮에는 데리고 다니면서 시주를” 받는다. 부모들은 딸아기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양반 집에 이런 일이 없다” 하고 그를 죽이려 하다가 결국 내쫓는다.

추방의 방식과 주인공의 이후 행적은 두 본풀이에서 차이가 난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영웅신화의 빈번한 소재인 무쇠석함이 사용된다. 석함에 갇혀 四海를 둥둥 떠나니다 표착한 곳은 제주도 구좌면 김녕리 포구였는데,³²⁾ 무쇠석함에서 나온 것은 “큰 배염은 흐나이고/준 배염은 일곱이고/눈은 햇득 세는 벨록”³³⁾ 인간이 아닌 뱀 여덟 마리였다. 무쇠석함을 발견하고 문을 열었던 일곱 명의 해녀들은 병이 나고, 문점을 통해 모녀 뱀들은 해녀들로부터 칠성새남을 받고 각각 치소를 정한다.³⁴⁾ 이처럼 <칠성본풀이>에서는 추방 이후 인간에서 뱀신으로 주인공의 형상이 크게 변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신적인 면모가 강조된다. 여신이 동물과 인간의 형상을 넘나드는 것은 앞서 살핀 <토산리알당본풀이><월정리본향당본풀이>와 같다.

<초공본풀이>에서는 하녀인 늣인득이 정하님과 함께 보따리를 싸서 내쫓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자지명아기의 추방 이후 행적은 女神이라기보다는 수난받는 女人의 모습에 가깝다. 부모로부터의 분리, 남편을 찾아가는 여정, 출산에 이르는 과정은 전형적인 ‘여성수난사’³⁵⁾라고 할 수 있다.

31) 초공본과 칠성본에서 등장하는 중의 존재는 여주인공에게 ‘천상의 남편’이 되는 셈이다. 신화에서 모험의 당사자가 청년이 아닌 처녀일 경우, 그는 미모와 아름다움이 신의 배우자가 되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그려지며, 천상의 남편은 그녀에게 하강하여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를 자기와 동침하게 한다. (Joseph Campbell, 앞의 책, 118면)

32) 『무가』,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여무 73세 이무생님 구연본

33) 앞의 책, 160면.

34) 뱀신은 흔히 ‘할망’으로 불리고 여신으로 인격화되는데, 남신 ‘할오방’인 경우에도 神堂을 칭할 때는 ‘할망당’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뱀신의 ‘할망’은 그 신의 제단의 위치와 관련시켜 ‘뒷할망’, ‘물할망’, ‘칠성할망’, ‘안칠성할망’, ‘뱃칠성할망’ 등으로도 불린다. 제주도에 널리 퍼져 있는 뱀신앙은 그 출처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특히 칠성한집인 뱀신은 중국에서 건너온 외래신으로서 여덟 모녀 뱀신의 구역이 각기 정해져 있다. 표선면 토산리의 경우 특히 그렇지만, 칠성본풀이에도 뱀신이 모계로 형상화되어 있듯이 뱀신앙은 女系세습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무가』, 743면)

35) 서대석은 『제석본풀이 연구』에서 ‘딸아기’의 수난으로부터 ‘여성수난’의 구조를 추출한 바 있다. 제

서귀읍 호근리 김명윤님 구연본³⁶⁾에는 자지명아기가 남편을 찾아가는 여정을 길게 노래 함으로써 여주인공의 수난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집에서 쫓겨난 자지명아기는 눈물을 하염 없이 흘리며 늦인득이 정하님과 함께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 정처없이 길을 떠난다. 나무들이 하늘 높이 치솟아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대나무밭에서 자지명아기와 정하님은 어쩔 수 없이 밤을 보내는데,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가르쳐준 대로 자기 보따리 안에 든 청부채를 꺼내 부치고 간신히 길을 찾는다. 그 길을 따라 오르자 다시 앞에 白山이 있고, 백산을 넘자 다시 靑山이 떡 버티고 있다. 밝은 산, 어두운 산, 거꾸로 된 산을 넘는데, 산을 다 넘고 나자 이번에는 靑水바다와 黑水바다가 앞을 가로막는다. 자지명아기가 물가에 앉아서 울고 있으려니 어디선가 표도선이 다가오고, 그 배에 탄 사람은 자지명아기에게 보따리를 열어 보라고 일러준다. 결국 보따리 안에 든 명주 한 필을 꺼내어 길게 펼쳐서 물을 건널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황금산 도단땅에 도착한 자지명아기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을 거쳐야 한다. 즉 참기름을 바른 기장 한 동이를 내어주면서 껍질을 벗겨 가져오라는 것이다. 자지명아기는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자 참기름이 마르기를 기다려 잠이 드는데, 하늘나라 부영이가 날아와서는 기장을 모두 벗기고 쌀만 남겨둔 채 다시 날아간다. 결국 자지명아기는 황주자 선생의 시험을 통과하고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아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김명윤님 구연본에서 자지명아기의 삼형제 출산은 대단히 신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주목된다. 첫째아들 本命은 자지명아기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둘째아들 二命은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셋째아들 三命은 앞가슴을 헤치고 솟아났다고 했다. 이것은 자지명아기의 여신적 면모라고 하겠지만, 자지명아기는 어디까지나 ‘자식을 낳는’ 어머니로서, ‘생불을 주는’ 주체인 맹진국할망의 신적 성격과는 다르다. 생불할망은 女神이라면, 자지명아기는 일개 女人에 불과하다. 인간의 생산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신과 인간의 지위는 엄연히 구분된다.

자지명아기의 일대기를 통해 강조되는 女人의 수난사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인의 수난사(1) :

비범한 출생 → 혼전잉태 → 추방 → (남편을 찾아서) → 출산 → 인준
(불완전한 결연) (모성성 획득)

자지명아기가 잉태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의 수난사로 이해되는데, 이때 자지명아기는 특정한 女神이라기보다는 평범한 女人의 면모를 지닌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여성 일반에게는 흔하디 흔한 경험이지만, 남성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성 개개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다. 여성에게 부과된 성역할의 영역이 그리 넓지

석본풀이의 여성수난은 서사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혼사장애’의 원형과 연관되는데, 특히 生産神, 즉 地母神의 수난에서 형성된 원형으로 보고 있다. (앞의 책, 173-4면)
그러나 혼사장애 주지가 여성의 혼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지모신의 수난은 잉태와 출산의 과정에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주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초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의 두드러진 차이점이기도 하다.

36) 『무가』 53-63면.

않았던 古代일수록, 잉태와 출산의 문제는 여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일 수 있고, 또한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고유한 것이다. 흔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역경일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일반의 고난은 <초공본풀이>에서 ‘혼전잉태’와 ‘추방’이라는 비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표현된다. 자지명아기가 삼형제를 낳고 신직을 부여받은 것은 곧 여성이 출산을 통해 母性성을 획득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잉태와 출산의 과정에서 비롯된 자지명아기의 수난은 여성 일반의 보편적인 것이며, 자지명아기의 고난 극복은 일회적이고 특수한 것이 아니라 여성 일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 ‘영웅의 일생’ 구조로 이루어진 서사시를 모두 영웅서사시라고 한다면,³⁷⁾ <초공본풀이>는 여성영웅서사시³⁸⁾이고 자지명아기는 여성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지명아기의 영웅성은 잉태와 출산의 과정에서 비롯된 고난을 극복하고 모성성을 획득하는 데 있다.

한편, 기록서사시 <동명왕편>에서 유희의 일생 역시 자지명아기의 경우와 유사하다.³⁹⁾ 남편을 찾아가는 여정이 없는 대신, 출산 후 주몽을 기르는 과정이 강조되어 여주인공의 모성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자지명아기가 출산 이전에 남편을 찾아가는 여정은 여성의 수난을 강조하는 서사적 장치일 뿐, 잉태와 출산이 강조되는 서사시에서는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오히려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지점은 출산과 그로 인한 자식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후 살펴볼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수난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와 구별되는 점이다.⁴⁰⁾

(2)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는 대단한 장편이다. ‘기자정성에 의한 출생, 연애와 결혼, 부모로부터의 추방, 죽은 남편을 살려내는 영웅적 위업, 신으로의 좌정’이라는 주인공의 행적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도 손색이 없다. 중세 범인 생활서사시 가운데 애정서사시로서,⁴¹⁾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여성구비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자청비는 자지명아기와 같이 여성영웅의 면모를 띠고 있다. 그 이유는 단지 자청비가 남성신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그의 행적이 영웅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

37) ‘영웅의 일생’ 구조로 이루어진 소설을 영웅소설로 보는 것은 광의의 개념이다. 협의의 영웅소설은 군담소설에 가깝다. 영웅서사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앞의 책, 15면)

38) 조동일은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지성사, 1997)에서 서사시의 역사적 전개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다. 원시 신령서사시·고대 영웅서사시·중세 범인서사시가 그것이다. 영웅서사시는 다시 여성영웅서사시와 남성영웅서사시로 나누었는데, 남성영웅서사시에 대응하는 여성영웅서사시를 설정한 것은 타견이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자료들의 실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주로 민족의 시조나 건국의 주체의 내력을 노래하는 남성영웅서사시는 ‘고대’라는 특정 시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지만, 여성영웅서사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여성영웅서사시의 개념을 ‘영웅의 일생 구조로 이루어진 여성주인공 서사시’라는 넓은 뜻으로 사용한다.

39) 서대석은 서사무가, 고전소설, 신소설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여주인공들의 수난이 柳花의 일생에 접근해 있음을 지적하고, 여성수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의 사적인 흐름을 고찰한 바 있다. (앞의 책, 170-192면)

40) 자지명아기가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초공본풀이>가 자지명아기를 주인공으로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는 母子관계만 강조되던 것이 각편에 따라서 夫婦관계가 강조될 수 있다. 이것은 남성과의 관계가 여주인공에게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는 중세의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서,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일생을 통해 구체화된다.

41) 조동일, 앞의 책, 105면.

문만은 아니다. 자청비의 애정성취가 갖는 의미를 농경신의 성격과 연결지어서 오곡의 풍농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심성으로 해석한 것은 타당하지만,⁴²⁾ 자청비의 행적에서 읽을 수 있는 여성 일반의 일상적인 삶의 의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영웅성의 근거는 자지명아기의 경우와 다르다.

‘영웅의 일생’ 구조에 따라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김진국(父)과 조진국(母)은 부유한 양반이다.
- B. 수록제를 지내고 자청비를 낳다.
- C. 미모와 재주를 겸비하다.
- D. 하인 정수남을 죽인 죄로 집에서 쫓겨나다.
- E. 청태국 마귀할망이 자청비를 수양딸로 삼다.
- F. 문도령과 이별/결합하다.
- G. 세경신이 되다.

자청비의 영웅다움이 어떤 측면에서 드러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F단락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웅에게 닥치는 위기와 고난은 자청비의 경우 문도령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문도령과의 이별은 모두 세 번 설정되어 있고, 자청비는 매번 문도령과의 결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로 그려진다.

첫 번째 이별은 자청비와 문도령이 서울로 글공부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청비의 집에서 두 사람이 부모 몰래 혼인을 한 이튿날의 일이었다. 애당초 남장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문도령을 따라 나섰던 자청비는 문도령보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능력이 앞서는데, 하늘옥황 문선왕으로부터 문도령에게 장가들러 오라는 편지가 온 것이다. 자청비는 혼장선생을 작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도령에게 스스로 여자임을 밝히고, 두 사람의 결연이 이루어진다.

문도령이 떠난 후, 자신을 괴롭히는 정수남을 죽이고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청태국 마귀할망의 수양딸이 된다. 우여곡절 끝에 옥황에 오른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게 되고, 버선만들기, 마패자 만들기, 칼선다리 타고 옥황에 오르기 등 문선왕이 부과한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청비는 결국 문도령과의 혼인을 허락받는다.

두 번째 이별은 死別이다. 문도령이 불량배들의 모략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별에 임해서도 자청비는 남편인 문도령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청비는 죽은 문도령을 자는 것처럼 꾸며 놓고, 찾아온 불량배들을 거꾸로 골탕을 먹여 내쫓고, 환생꽃을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길을 떠난다. 궁덕새를 이용해 서천꽃밭 꽃감관의 신임을 얻고 그의 셋째딸과 거짓 혼인을 한 뒤, 과거 보러 떠나기 전날 서천꽃밭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환생꽃을 몰래 꺾어 온다. 대님과 토시와 큰얼레빗을 징표로 남기고 돌아와서는 결국 죽은 문도령을 살린다.

세 번째 이별의 상황은 문도령의 무심함에서 비롯된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서천꽃밭의 셋째딸을 찾아가도록 시키는데, 문도령이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자청비의 존재는 잊은 채

42) 이수자는 신화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세경본풀이>에 주목한 바 있다. “지상적 존재로 태어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하늘의 인정을 받은 후에 마침내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자청비는 곧 여성영웅의 원형적 존재”라고 했다.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제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0)

서천꽃밭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천꽃밭으로 보내면서 한 달 가운데 보름만 그곳에서 지내라고 당부했건만, 무심한 문도령은 삼년이 되어도 돌아올 줄을 모른다. 자청비는 소식 한 자 없는 문도령을 원망하며 제비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

“문국성 문두령아, 용도 무심할 수가 시라. 선보를 살건 후보를 살곡 후보를 살건 선보를 살랜 그만이 당부하고 보냈건만 소식 한번이 었이니 나의 팔제런가 나의 스주런가?” ⁴³⁾	“문국성 문도령아, 이렇게도 무심할 수가 있을까. 先보름 살면은 後보름 살고 後보름 살면은 先보름 살라고 모처럼 당부하고 보냈었건만 소식 한 번이 없으니 내 팔자인가 내 사주인가?”
--	---

무심한 남편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자청비의 모습은 첩을 두고 두 집 세 집 살림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자청비의 편지를 받아든 문도령은 정신이 번쩍 들어 너무 급한 나머지 말을 거꾸로 타고 돌아오는데, 자청비는 문도령이 자기가 보기 싫어서 말을 거꾸로 타고 왔다고 오해하고 문도 열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옥황전에 올라 문선왕에게 신세한탄을 하는데, 문선왕은 오히려 아들인 문도령의 역성을 든다. 결국 자청비는 문선왕이 내려준 五穀 種子를 받아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신이 된다.

이처럼 자청비의 영웅성은 문도령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자청비에게 닥치는 위기의 상황은 배우자인 문도령과의 관계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 자지명아기의 경우와는 또 조금 다른 의미의 여인수난사를 자청비의 행적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여인의 수난사(2) :
비범한 출생 → 결연 → 남편과의 분리 → 남편과의 재결합
(→ 분리 → 결합 → 분리 → 결합 …)

세 번에 걸친 문도령과의 ‘분리-결합’은 자청비에게는 즉 ‘고난-고난극복’의 과정이다. 자청비가 영웅일 수 있는 조건은 문도령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온갖 역경을 무릅쓴다는 데 있다. 관계의 파탄은 외적인 여건에 의한 경우도 있고,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문도령의 무심함과 변심이라는 내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남장을 하고 중으로 변장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환생꽃을 구하기 위한 서천서역행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청비가 갖고 있는 영웅으로서의 비범한 능력이란 단순한 미모나 재주보다는 남편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굳은 신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청비를 특히 ‘여성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자청비의 행적이 곧 일반적인 여성의 일생으로서 하나의 전형성을 띠는 데 있다. 죽은 남편을 살려내는 것은 다분히 신화적인 발상이지만, 남편과의 ‘분리-결합’의 연속은 평범한 여성의 삶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수난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정도가 클수록, 남편과의 분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여성에게는 엄청난 고난이며,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켜야

43) 『무가』, 261면.

할 당위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처럼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의 일생을 통해 세경신의 내력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남편/남성과의 분리’라는 여인들의 또 다른 수난을 강조하는 중세여성서사시의 한 전형이라 하겠다.

4. 여성구비서사시의 문화사적 의미

여성서사시에 관한 논의를 위해 개별적으로 고찰한 본풀이 자료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으고, 자료들간의 상관관계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각 본풀이 자료들의 형성과정이나 신화적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사시에 나타난 여성주인공에 대한 관념을 중심으로 여성서사시의 거시적인 흐름을 조망해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필요하다.

여기서 여성구비서사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한 가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여성서사시의 변천은 서사시라는 갈래의 문학내적인 요인과 여성에 대한 시대관념이라는 문학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서사시 내적인 변동요인은 ‘영웅의 일생’이란 구조의 유입과 수용이다. 애초에는 <두리빌렛당본풀이>에서와 같이 동물이나 무생물의 형태로 숭배되던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바뀌면서 <송당본향당본풀이B형>이나 <각시당본풀이>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여신서사시가 불려지다가, 남성영웅서사시의 일반적 특징인 ‘영웅의 일생’ 유형을 받아들이면서 서사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허릿궁할망본풀이><금악본향당본풀이>는 완전한 일대기 구조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영웅의 일생’ 유형에서 흔한 몇 가지 화소들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당본풀이와 일반본풀이의 교섭양상을 짐작케 한다. <세화백주또본풀이><월정리본향당본풀이><문씨애기본풀이>는 비교적 장편으로서, 당본풀이가 여신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면서 서사적으로 풍부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망본풀이><초공본풀이><세경본풀이> 등 ‘영웅의 일생’ 구조를 십분 활용한 일반본풀이들은 일대기가 뚜렷할수록 주인공은 신인지 영웅인지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女神의 권능을 강조하기도 하고 女人 수난사로도 이해되었다.

여성서사시의 변천에 영향을 준 문학외적 측면은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여성에 대한 관념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서사시 향유층의 인식과 관련된다. 이것은 본풀이를 문학으로서 향유하는 계층이 실제로 인식하던 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여성주인공 서사시는 여주인공의 행적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일정한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주도 본풀이는 여성서사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원시로부터 고대, 중세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념의 변화가 서사시의 주인공을 전지전능한 女神에서 고난받는 女人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고 본다.

먼저 <두리빌렛당본풀이>에서와 같이 뱀으로 형상화되는 신은 中性的이다. <각시당본풀이><용강본향당본풀이>의 신 역시 ‘육황상제따님’이란 명명 외에 ‘女神’으로서의 다른 표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중성적이다. <토산리알당본풀이>처럼 한 편의 본풀이에서 여신이 뱀과 애기씨로 변신을 거듭하는 것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신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胞胎木 아래에서 열매를 받아 삼키고 잉태하여 자손을 낳았다는 한라산 이씨할망에 관한 <송당본향당본풀이B형>은 兩性性을 구비한 大母神의 형상을 구현하고 있다. 여신의 형상에서 드러나는 중성성과 양성성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上下尊卑의 관념이 형성되기 이전,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기 이전 단계의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일단 人格이 부여된 신은 女神과 男神으로 나뉘고, 다시 여신의 女性性和 남신의 男性性 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을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 묘사된 자기명아기의 일생은 잉태에서 출산에 이르는 험난한 과정이며, 자기명아기가 여성영웅일 수 있는 근거는 母性性 획득에 있다. 생불할망은 생명의 탄생에 관여하는 여신으로서, <할망본풀이> 역시 모성성을 강조하는 여성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월정리본향당본풀이> 등은 뱀으로 형상화되는 원시적인 여신의 모습을 완전히 벗지 못했지만, ‘혼전잉태-추방-출산’의 화소가 여신의 내력을 노래할 때도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여신의 모성성을 환기시킨다.

근대이후 여성해방운동사와 페미니즘이론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도구주의⁴⁴⁾가 한동안 절대적인 이념으로 페미니즘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페미니즘 이론가들 사이에서 그러한 경향에 대한 자체적인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여성의 ‘표현적’⁴⁵⁾ 속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이념형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과 관련하여 생태주의가 활발히 논의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히 여성의 표현성이 강조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여성의 표현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성이 지니고 있는 생명성이다. 여성의 생명성은 모성성과 연결되며, 이는 여성이 남성과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명제가 통시대적으로 항상 옳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여성의 본질이 모성성에 있다는 주장은 자칫하면 여성의 성역할을 출산과 양육에만 묶어둘 소지가 있기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되물어야 하는 시점에서, 모성성에서 비롯된 여성의 생명력은 분명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대다수는 표현주의니 양극주의니 하는 이론의 형태로 논리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의 가치를 십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주체로 한 본풀이에서 모성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소설의 여주인공에게 혼사장애가 가장 큰 고난으로 설정되는 것과 비교할 때,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구비서사시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한편 <세경본풀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전형적인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從俗性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이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여성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획득한다는 뜻이다. 자청비의 일대기에서 나타나듯이, ‘남성과의 분리와 결합’의 반복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자청비가 아무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을 갖고 행동하는 주체라 해도, 그에게 유일한 생의 목적은 문도령과의 온전한 결합이며 결합의 유지이다. 그러나 자청비의 행동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중세 시기의 여성 일반과 남성 일반이 맺고 있는

44) Glennon에 따르면, 생물학적 性差와 남녀평등의 이상향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도구주의, 표현주의, 양극주의, 통합주의로 요약된다. 도구주의와 표현주의는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보다 바람직한 속성으로 간주하고 남녀 모두 이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주의와 양극주의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동질적 대등’과 ‘이질적 대등’을 주장하는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다.(Lynda M. Glennon, 이수자 역, 『여성과 이원론 : 지식사회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0.)

45) 표현주의는 물론,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인 차이가 생물학적 성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이원론에 입각해 있는 양극주의에서도 여성의 표현성은 강조된다. 남녀는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키워나가면서 공존하는 것이 남녀평등의 이상적인 상태라는 주장이 양극주의의 입장이다.

사회적 관계가 이미 여성의 종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칭비가 여성영웅일 수 있음은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다분히 역설적이라고 하겠다.⁴⁶⁾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여성서사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관념은 ‘중성성·양성성→모성성→종속성’으로 변해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포태목 열매를 먹고 잉태했다는 이씨할망이 양성적인 존재라면, <할망본풀이>와 <초공본풀이> 등의 여신들은 그 행적을 통해 모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경본풀이>와 <금약본향당본풀이> 등은 남신들과의 결연에 초점을 맞추고 배우자와의 온전한 결합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있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이라는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성 관념의 변화는 여타 서사문학에 나타난 여신 또는 여성영웅의 형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마고할미와 聖母, 神婚의 배우자로서의 여신들은 여성에 대한 원초적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山神的 大母神像이 天父神의 배우자로서 地母神 형상으로 변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⁴⁷⁾ 대모신이 천지만물을 잉태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온전한 양성적 존재라면, 지모신은 천부신과의 결연을 통해서만 창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배우자와의 결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잉태와 출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여성서사시에서 ‘잉태와 출산’의 화소와 ‘결연’의 화소를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성의 정체성을 문제삼을 때 母子관계보다 夫婦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신 또는 여성영웅의 행적이 모성성의 획득보다 배우자와의 온전한 결합에 보다 비중을 두고 서술되는 것은 서사시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소설에서는 훨씬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고전소설에서 혼사장애 주지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반면, 실상 여주인공의 잉태와 출산이 소설 전체의 주된 갈등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별반 없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여성이 그 스스로 온전했던 양성적인 존재에서, 모성성의 획득이야말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할 수 있었던 잉태와 출산의 주체로,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거꾸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종속적인 위치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관념은 시대마다 크게 변해 왔다고 생각된다. 여신을 양성적인 존재로 인식한 것이 원시시대의 관념이라면, 여성에게 있어서 모성성이 가장 강조된 것은 고대, 남성에 대한 종속적 위치가 부각된 것은 중세 이후의 일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가부장제는 이미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철저히 종속된 위치로 굳어진 것은 중세의 특징이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이르러, 남성과의 관계맺음을 거부하는 후기여성영웅⁴⁸⁾들의 모습은 분명 여성구비서사시의 주인공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46) 이런 점에서 세경본풀이는 모성성을 강조하는 본풀이의 전통보다는 혼사장애를 강조하는 소설의 전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일반적인 혼사장애 주지가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수난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칭비의 수난은 혼인 이후에 결혼생활에서 빚어지는 수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혼사장애 주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고 본다.

47) 천혜숙, 앞의 논문 ;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25, 민속학회, 1993.

48) 후기 여성영웅소설은 『홍계월전』, 『이학사전』, 『정수정전』, 『방한림전』, 『옥주호연』, 다섯 작품을 가리킨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들은 女化爲男하여 용맹스런 장군으로서의 영웅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전기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과 동일하지만, 남편이나 아버지와의 갈등이 소설에서 주요한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자칭비가 자신의 존재의미를 남성과의 관계에서 찾고 그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 온갖 수난을 무릅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5. 맺음말

본고는 제주도 본풀이를 대상으로 ‘여성주인공 구비서사시’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피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본풀이는 일대기 형식이 아닌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웅의 일생’ 구조를 수용함으로써 여신의 내력이 서사적으로 확대된 형태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여신의 내력을 노래한 일반본풀이는 대체로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주인공의 성격은 단일하지 않아서 女神의 權能이 강조된 형태와 女人의 苦難이 강조된 형태로 크게 대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처럼 여성주인공 본풀이는 기본적으로 여신에 관한 노래이지만, 각각의 자료에 남아 있는 여신의 모습은 단일하지 않으며, 여신의 변모 양상은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본풀이 향유집단의 관념을 일정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관념의 변화는 대체로 세 단계로 나뉘는 것 같다. 원시적 여신의 大母神性, 고대적 여신과 여성영웅의 母性性, 중세적 여성영웅의 從屬性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념의 변화는 여성구비서사시가 풍부해질 수 있게 한 내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구비서사시의 형성과 변천은 여성서사시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구비서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큰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하는 더 큰 문제이다.

본고는 여성서사시 연구에 대한 시론적 성격을 갖는 만큼, 거시적인 조망을 통해 여성구비서사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개별 자료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나, 신화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본풀이의 여러 화소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작업들이 병행될 때 형성과 변천에 관한 적절한 논의도 가능해질 것이다.